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현황과 사회경제적 영향*

김 영 진**

1. 서론

중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노동이주의 대부분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노동이 남아도는 자원빈국에서 노동공급이 부족한 자원부국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노동이주의 주요 송출국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타지키스탄이며 주요 목적지 국가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다(김영진 2012).

우즈베키스탄의 유출 노동이주는 그 규모와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결정자나 국제기구로부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비공식 채널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숫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정보를 비롯하여 노동이주에 관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이주자의 절대적인 수치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최대 규모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 간에 이견이 없다. 그 수치는 1백만 명에서 3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1]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농촌지역이나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Karakalpakstan autonomous republic)의 계절적 이주자로, 따뜻한 계절에만 외국에 체류한다. 우즈베크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건설, 판매, 공업부문과 농업, 요식업 및 서비스부문에 종사한다.

우즈베크 정부는 자국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며 이주문제가 국내외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

* 이 논문은 2012년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전략지역 심층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KIEP 지원 논문임.

**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 교수

1) 또 다른 추정에 따르면 200만 명에서 800만 명에 이르는 우즈베크 국민이 외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E. Marat(2009), 16; D. Abdurazakova(2011), 35 참조.

한 이주노동 및 송금 등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대로 집계하여 발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기관을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정보도 키르기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즈베크 정부는 이주문제에 관한 역내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데 계속하여 주저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즈베키스탄이 이주문제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인 국제적 평판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이주에 관한 협력은 러시아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면 우즈베크 이주자들의 가장 큰 유입국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체제전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이주는 1990년 중반 이래 일자리를 찾지 못한 대다수 지방 주민이 돈을 버는 주요 방법 중 하나였다. 비공식 채널을 통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가 노동이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식 통계는 이주에 관한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 및 UAE와는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송출하는 공식적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러한 협정이 노동이주에 대한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노동이주가 송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노동이주는 생산 잠재력의 상당한 손실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금의 유입을 의미한다. 노동이주는 이주노동 유입국에 대해서는 현지 인구에 실업과 일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다.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 관련 문제를 검토하면, 노동이주(대부분이 비공식 이주)는 광범한 실업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긴장을 감소시켰으며, 이주자가 보낸 송금은 그 가족의 소비능력 증가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이주과정은 이주자와 그 가족, 그리고 송출국과 유입국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갖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주노동자로부터의 화폐송금액은 특히 2000년 이후에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의 일부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은행업 분야의 화폐이전서비스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둘째로는 주택,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주와 개발에 관한 문헌에서 중요한 의문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거나 충분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이주와 관련된 중요한 의문은 이주가 특정한 유형의 개발로 이끄는지 여부가 아니라, 왜 이주가 어떤 송출지역에서는 더욱 긍정적인 개발성과를 보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성과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Taylor 1999; Jones 1998:

579). 또한 이주, 송금, 그리고 개발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주자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사적-사회학적인 결정요소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Castles and Miller 2009; Sadovskaia 2006). 본 연구는 이주 및 개발과 관련된 이론적 전개 및 중심적 이슈에 대한 개관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주관련 문헌에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일련의 의문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정한 답변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전개된 노동이주의 규모와 전개 과정 및 특징, 그리고 그에 따른 송금의 방법과 규모 및 특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주와 송금이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지의 빈곤축소와 발전(현지 발전의 모든 수준을 포함)에 어떠한 긍정적・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근로연령층의 해외 이주로부터 사회공동체가 얻는 이익과 사회경제적 손실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송금(현지의 인적자원 잠재력의 손실에 의해 얻어진 금융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자원이 단지 일상적인 필수품에 소비되는 것 외에 지속 가능한 미래의 소득발생원을 창출하는 기반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노동이주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고 인적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2. 이주와 송금 및 개발: 이론적 검토

이주와 송금이 고향에 남겨진 가족의 생계와 생존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학자는 거의 없지만, 이주와 송금이 이주자 송출 지역 및 국가의 지속적인 인간개발과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 문제는 지난 40여 년에 걸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주와 발전에 관한 사고를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주의적’ 낙관주의가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지배한 반면,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대규모 비관주의가 지배했다. 이러한 관점은 1990년대의 더욱 미묘한 견해의 출현, 오늘날의 송금에 대한 재인식, 그리고

최근의 이주와 발전에 관한 낙관주의의 동시적인 부활과 함께 변화되었다(<표 1> 참조).

<표 1> 주요 국면별 이주와 발전에 관한 연구와 정책

시기	연구 관점	정책 분야
1973년 이전	개발과 이주에 관한 낙관주의	발전주의적 관점. 이주자에 의한 자본과 지식의 이전은 도약기에 있는 개도국의 발전에 도움이 됨. 개발은 (이주노동자의) 귀환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
1973-1990년	개발과 이주에 관한 비관주의(종속이론, 두뇌유출)	비관주의 증가. 두뇌유출에 대한 우려. 이주정책의 반복적인 실험 이후 이주자 유입국에서의 (사회)통합에 초점. 이주는 대체로 개발영역에서 사라짐.
1990-2001년	실증연구(NELM, 생계 접근, 트랜스민족주의)의 영향으로 더욱 미묘한 견해로 재조정	유입이주 정책. 지속적인 회의론과 이슈에 대한 무시. 이주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실시.
2001년 이후	특히 송금에 대한 연구 붐.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 개발과 귀환을 연결시키지 않음.	송금 붐 하에서 이주와 개발에 대한 낙관주의의 부활, 그리고 송금, 두뇌 확보, 디아스포라를 중요한 개발도구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관점을 신속하게 선회. 이주의 개발에 대한 기여는 순환이주와 귀환이주에 두어진 새로운 희망 내에서 틀이 형성됨.

자료: Hein de Haas(2010), 4.

2.1. 이주 낙관론: 발전주의 관점과 신고전학파 관점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발전주의 시기에는 빈곤국이 대규모 자본이전과 산업화 정책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과 현대화의 흐름에 편승할 수 있다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졌다. 또한 이 시기에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의 대규모 노동이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많은 개도국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는 기대를 품고 이주과정에 나서게 되었다(Papademetriou 1985: 212). 개도국의 정부들은 이주를 국가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의 하나로 여기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했다.

발전주의적인 “이주 낙관론자들”은 이주가 북-남(부국과 빈국) 간 투자자본의 이전을 가져오고 전통적인 사회공동체를 자유주의적이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사상과 현대적인 지식 및 교육에 가속적으로 노출시킨다고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이 관점은 귀환 이주자들을 변화의 중요한 주체이자 혁신자 및 투자자로 인식한다. 이주자가 외국에서 귀환하기 전에 획득하게 되는 경험, 숙련, 지식, 그리고 송금은 개도국의 경제적 도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한다(Penninx 1982). 이에 따라 귀국 이주자들은 대규모 자금을 송출국(고국)의 기업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 또한 이주를 긍정적인 면에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고전학파 이주이론은 송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Taylor 1999: 65). 균형성장의 이론적 모델에 대한 신고전학파 옹호자들은 이주를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생산요소의 최적 배분에 기여하는 과정으로 인식하는데, 요소가격 균등화 과정에 따라 송출국과 유입국 양국에서 임금수준이 균등화되면 이주는 멈추게 될 것이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농촌지역에서 도시 산업부문으로의 노동의 재배치는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선결조건이며, 따라서 전체 개발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Todaro 1969: 139). 강제되지 않은 시장적 환경에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궁극적으로 노동의 희소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이주자 송출사회에서 임금수준을 상승시킬 것이다. 자금흐름은 정확히 노동이주와는 반대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De Haas 2007: 4).

따라서 엄격하게 말해 신고전학파의 세계에서 이주의 발전주의적인 역할은 전적으로 이와 같은 요소가격 균등화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주에 관한 신고전학파 견해는 국제금융기관을 둘러싼 지배적인 관점이었다. 예를 들면, 세계은행 보고서(World Bank 2002)인 『글로벌화, 성장 및 빈곤』의 “이주를 향한 정책”이라는 절은 유입국에 대한 이주의 편익을 요소가격 균등화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으며, 송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불과 1년 후 세계은행의 『글로벌 개발금융』에서 “노동자 송금: 외부개발금융의 중요하고도 안정적인 원천”(Ratha 2003)이라는 장과 대조적이며, 이 장은 송금에 대한 관심의 갑작스런 부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2.2. 이주 비관론: 역사적 구조주의 관점과 종속이론 관점

1973년 석유위기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산업의 구조조정 및 실업의 증가를 예고했다. 또한 국제이주의 희망찬 시대는 종언을 고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다소간 이주와 개발에 관한 사고의 전환과 동시적으로 일어났다. 이주와 개발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는 1960년대 말 (역사적) 구조주의 견해로의 사회과학 내 패러다임 이동, 그리고 이주와 개발에 관한 낙관적인 견해와 배치되는 실증연구의 양적 증가의 영향으로 인해 점점 도전을 받게 되었다.

양적으로 증가한 학술적인 연구는 이주가 저발전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주 비관주의자들'은 이주가 인적자본의 유출을 야기하고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사회공동체와 그 경제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주는 결국 수동적이고 비생산적인 발전과 송금 의존적인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이루어졌다. "두뇌유출"과 "육체유출(brawn drain)" – 농촌지역으로부터 육체노동을 할 수 있는 젊은 남성과 여성의 대규모 이탈 – 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유용한 노동력을 앗아감으로써 노동력의 극심한 부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원인이란 비난을 받았다. 또한 이주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극빈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와 송금은 송출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Lipton 1980).

또한 이주 비관론자들은 송금이 주로 과시적인 소비와 (주택과 같은) '소비적인' 투자에 지출될 뿐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Lewis 1986; Lipton 1980). 이주자 송금의 생산적 투자로의 이용에 관한 회의론은 이주와 발전에 관한 논쟁에서 공통적인 논점이 되었다(Lewis 1986; Massey et al. 1998; Taylor and Wyatt 1996.). 또한 현지 경제의 약화뿐만 아니라 의존성 증가, 이주자들에 의한 소비 및 토지구입의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토지가격 앙등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주와 송금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점점 더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주자들이 들여온 돈은 수입 재화나 외국산 식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농촌의 기호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Lipton 1980). 또한 이주는 종종 사회공동체의 연대를 무너뜨리고 이주자 송출국의 사회문화적 고유성을 손상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Hayes 1991). 더욱이 이주의 중요한 '긍정적' 영향으로 평가된 이주자 가족의 복지 증가는 송금이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수입원이란 점에서 부자연스럽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북-남(부국과 빈국) 간 이주는 이주자 송출국의 자율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대신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Durand et al. 1996). 이러한 견해는 개발(발전)에 관한 역사적 구조주의 패러다임과 부합한다. 특히 종속학파 논자들은 이주를 통한 자본주의 침투와 그것이 수반하는 현상이 저개발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저발전의 발전(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여겼다. 이와 관련된 '누적적 인과관계'(Myrdal 1957)라는 개념은 세계경제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서구세계의 지속적인 번영이 주변부 지역으로부터 자본과 노동을 수탈한 데 따른 것으로 받아들인다.

사실상 이러한 접근은 신고전학파나 발전주의 접근을 거꾸로 뒤집은 것인데, 이주는 개인 간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2.3. 다원주의 관점: 노동이주의 신경제학과 생계 접근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노동이주의 신경제학(NELM)'이 주로 미국의 연구 배경 내에서 발전주의 및 신고전학파 이론(이주 낙관론) 그리고 구조주의 이론(이주 비관론)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다. 기존의 양 접근은 이주와 개발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복잡한 현실을 다루는 데 있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결정론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NELM은 이주의 원인과 결과를 더욱 명시적으로 연결시키고 이주가 개발에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이주와 발전에 관해 훨씬 더 미묘한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스타크(Stark 1991)는 개별 이주자의 행태를 더욱 폭넓은 사회적 맥락 내에 위치시키고 개인이 아니라 가계를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단위로 간주함으로써 개도국으로부터의 이주에 관한 학술적인 사고를 부활시켰다(Taylor 1999). 이 새로운 접근은 이주를 가계의 위험분산행위로 간주한다. 가계는 소득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과 같은 자원의 이용을 분산시키는 데 있어 개인보다 더욱 나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접근은 개인소득 극대화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가 이주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주자의 송금은 가계에 대한 보험으로 역할하기 때문에 이주는 소득위험에 대한 가계의 대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은 왜 사람들이 실제적인 소득격차가 없는 경우에조차 이주를 떠나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De Haas 2007: 6).

NELM 학자들은 이주가 가계의 생계에 더욱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기여한다는 점에 덧붙여, 대부분 자본시장과 보험시장이 불완전한 개도국의 상황에서 이주가 잠재적인 투자자금의 원천을 제공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Taylor 1999; Taylor and Wyatt 1996). 이러한 시장은 종종 거의 발전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비엘리트 집단에게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주는 다양한 시장 제약을 극복하고 가계가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하여 자신의 생계를 개선하는 생계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접근은 방법론적 기반의 취약성, 질적으로 낮은 분석 수준 혹은 많은 선행연구의 경험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근본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이 접근은 이주 및 송금이 비 이주자 가계를 비롯한 이주자 송출사회 전반에 미치는 복잡하고도 종종 간접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Taylor et al. 1996).

이와 같은 이주와 개발에 관한 사고의 변화는 사회이론에서의 패러다임 이동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때로 기든스(Giddens 1984)의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에 의해 영감을 받은 사회과학자들은 행위자 지향 접근과 구조 지향 접근을 조화시키려 했다. 구조와 주체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은 이주가 미치는 이질적인 영향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주와 개발에 관한 논쟁에서 본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주와 발전에 관한 '노동이주의 신경제학'(NELM)이나 '생계 접근'과 같은 다원주의적인 견해는 구조-행위자의 상호작용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개별적 의사결정의 총합이나 구조의 일방적인 영향에 의해 결과가 좌우된다는 견해보다 결과의 다양성이 더욱 클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의문은 이주가 개발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아니라, 왜 어떤 사회공동체에서는 이주가 개발에 기여해 왔고 다른 사회공동체에서는 훨씬 덜 기여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가 하는 것이다. 더욱이 종종 이주과정의 상이한 단계에 따라 이주가 미치는 영향은 변화한다(Jones 1998). 따라서 이주와 송금이 미치는 영향은 각 시기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나 해당 사회의 성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이주: 현황과 정책

3.1. 우즈베키스탄 노동이주의 추세와 현황

소비에트 시기 동안 우즈베키스탄은 전 연방 구성공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유출이주 비율을 가진 공화국 중 하나였다. 주로 러시아로부터 이주자들이 유입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이주자들의 목적지였다. 이 유입이주는 우즈베키스탄에 러시아어 사용인구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대부분 이슬람을 신봉하는 토착인구의 사회·문화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우즈베크 민족과 여타 중앙아시아 민족들에게 러시아어 사용이 확대되었고 러시아적인 생활양식과 습관이 배어들었다. 이 사회문화적 과정을 통해 러시아어를 의사소통과 교육 및 사회생활의 주요 언어로 삼는 우즈베크인이 등장하였다. 이 과정은 식민지 알제리와 인도에서 일어난 상황과 대단히 유사하다(A. Ilkhamov 2006: 2-3).

이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지리적 비이동성의 경향은 소련 해체 이후에도 강하게 남아 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내전의 참화로부터 도망 나온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출신 난민들의 목적지 국가로 계속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이러한 상황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생활수준의 끊임없는 하락으로 우즈베크인은 성공적으로 러시아에 정착한 타지크인과 키르기스인의 경로를 따르기 시작했다. 수세기에 걸쳐 정주민족 혹은 준 정주민족의 생활양식을 영위해왔던 우즈베크인은 이제 외국(주로 러시아)을 전전하면서 일자리를 찾는 일종의 '유목생활'로 전환한 것이다.

<표 2> 목적지 국가별 유출이주의 구조(2004년)

국가	%
러시아	64.0
카자흐스탄	28.1
한국	5.2
터키	1.4
유럽	0.7
OAE	0.4
기타	0.2

주: 데이터는 국내 이주를 제외시키기 위해 재계산한 것이다.
자료: Valentina Chupik, NGO 'Tong Jahoni,' Uzbekistan, 2005.

<표 3> 주요 인구, 경제, 사회 주요지표

	우즈베키스탄	노동유입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인구 (2009년, 백만 명)	27.6	15.4	140.0
중간연령 (2009년)	24.7	29.6	38.4
인구증가율 (2009년, %)	0.94	0.39	-0.47
도시인구 (2008년)	37	58	73
세계인간개발지수(HDI) 순위 (2009년)	119위/182개국	82위/182개국	71위/182개국
총노동력 (2009년, 백만 명)	15.7	8.7	75.8
농업 노동력 (%)	44%	32%	10%
GDP에서 농업의 비중 (2009년, %)	26.8%	6.4%	5.2%
1인당 GDP (2009년, 달러)	2,800	11,400	15,200
빈곤선 이하의 인구	26%	12%	16%

자료: *CIA World Fact 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의 주요 목적지 국가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및 한국이다. 약 64%의 이주노동자들이 러시아로 떠나며, 약 28%가 카자흐스탄을 선택하고 약 5%가 한국을 최종 목적지로 선택한다(<표 2> 참조). 1999년 이후 카자흐스탄이 목적지 국가로 이주노동자들 간에 인기를 얻었는데, 이는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즉,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이주 흐름의 전반적인 증가, 카자흐스탄의 경제실적 향상과 더욱 나은 소득(돈벌이)에 대한 기대, 카자흐스탄의 지리적 인접성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카자흐스탄으로의 노동이주는 러시아로의 이주보다 더욱 유리하다. 우즈베크 이주노동자들이 버는 평균소득은 이 두 목적지 국가 간에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카자흐스탄 남부지역은 더욱 낮은 비용으로 쉽게 갈 수 있으며 한 국경만을 통과하면 되기 때문이다(IOM 2006: 17).

이하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이주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지로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원인을 살펴본다.

3.2.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의 주요 유입국

3.2.1. 러시아로의 이주

소련 시기의 이주는 현재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추세와는

달리 자생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중앙집권적인 노동력 분배와 관리의 산물이었다. 이 시기의 우즈베크인은 지리적으로 아주 이동성이 낮았지만, 다른 공화국으로 이주한 우즈베크인은 주로 청년층이었다. 이들은 소비에트 군대에 징집되었을 때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대학에서 유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주했다. 우즈베크인은 소비에트 군대 내에서 차별을 당하고 민족 간 서열에서 낮은 지위에 놓였다.[2] 이와 같은 민족·종족간의 차별대우는 고향으로 돌아간 젊은 우즈베크인 사이에 민족주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한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유학한 우즈베크 청년층은 주류 소비에트 체제에 통합되어 그 가치를 받아들였다. 실제로 소비에트의 중간계층(인텔리겐치아, 전문가, 관리자, 관료)은 사회의 하위계층에 속한 사람보다 종족·민족 간 차별을 훨씬 덜 느꼈다. 전반적으로 중간계층은 소비에트체제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둥 중 하나였다.

소련의 해체 이후, 우즈베크의 청년층이 이용했던 이 두 가지 이주 채널은 대부분 중단되었다. 우즈베크인은 러시아 군대에 복무하지 않게 되었으며 러시아 대학에서 공부하는 우즈베크 출신 학생들은 소비에트시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에서 유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3]

이러한 이주행태의 변화는 우즈베크 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 특히 지방과 농촌지역에서 러시아어 구사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악화되어 가는 우즈베키스탄 내 러시아어의 지위는 우즈베크 사회에서 러시아 문화의 잔재를 점차 일소하려는 국가의 의도적인 정책으로 더욱 나빠졌다. 국가교육제도에서 러시아어는 제2 필수언어로 남아 있지만, 러시아어를 주요 학습언어로 가르치는 학교 수는 소련시기의 1,230개교에서 2000년에는 813개교로 감소했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70% 정도만이 러시아를 능숙하게 구사한다(А. Л. Федотов и др. 2002). 그 결과 일자리를 찾아

---

2) 오늘날 러시아 내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다시 이러한 경험을 겪고 있다.

3) 1992/1993와 2000/2001 입학년도 사이에 러시아 대학의 우즈베크 학생 수는 8,100명에서 3,300명으로 감소했긴 하지만, 여전히 이 숫자는 서구 대학에서 유학하는 우즈베크 학생 수를 넘어선다(Шереги, Дмитриев и Арефьев 2003). 1998-2004년 동안 4,699명의 우즈베크 학생들이 서구의 대학에서 유학했다. 1998-2002년의 더욱 짧은 시기를 보면 8,610명의 우즈베키스탄 출신 학생들이 러시아에서 유학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통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부했다(A. Ilkhamov 2006: 6).

러시아로 이주하는 현재의 청년층은 부모세대에 비해 러시아어 사용능력과 러시아 생활에 대한 인지도라는 면에서 더욱 낮은 자질을 갖고 있다.

<표 4> 러시아로 이주한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자의 추이 (1,000명)

국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카자흐스탄	124.9	65.2	55.7	29.6	40.2	51.9	38.6	40.3	40.0	38.8	27.9	553.0
우즈베키스탄	40.8	24.9	25.0	21.5	14.9	30.4	37.1	52.8	43.5	42.5	24.1	357.6
키르기스스탄	15.5	10.7	13.1	6.9	9.5	15.6	15.7	24.7	24.0	23.3	20.9	180.0
타지키스탄	11.0	6.7	6.0	5.3	3.3	4.7	6.5	17.3	20.7	27.0	18.2	126.9
투르크메니스탄	6.7	4.4	4.5	6.3	3.7	4.1	4.1	4.8	4.0	3.3	2.3	48.3

주: * 2000-2010년 동안 러시아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의 합계로서 출국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 자료: Russian Federal State Statistic Services.

현재 러시아는 우즈베크 이주자의 주요 목적지로 남아 있지만, 이주자들의 구성과 사회적 구조는 변화했다. 우즈베크 이주자들이 러시아행을 선택하는 데는 주로 네 가지 이유가 있다(A. Ilkhamov 2006: 6).

1)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러시아어 사용능력을 가진 우즈베크인에 대한 낮은 언어장벽
2) 낮은 출산율로 인구감소에 직면한 러시아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현실적 필요
3)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간 비자장벽의 해소
4)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훨씬 높은 러시아의 생활수준과 급여수준

러시아 내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자의 특징 중 하나는 대다수 이주자들이 노동허가나 영주권을 얻지 않고 러시아 내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연방 이주국(Russian Federal Migration Service)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 1-6월에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우즈베크인 가운데 33,900명만이 합법적인 이주노동자의 자격을 취득했다. 러시아연방 이주국을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공식 이주통계는 실제 이주자 숫자의 10-15%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긴다. 우즈베크 이주인구에 대해 합법/불법 비율(10-15%)을 적용하면, 2005년 1월-6월 러시아에는 약 334,000명의 우즈베크 이주자들이 체류하고 있었다. 다른 추정에 따르면, 이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2001년 사마라 주에서 실시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자의 수는 23,000명에 달했지만, 공식적으로 등록된 우즈베크 이주자의 수는 4,000명(조사결과의 17%)에 불과했다(Н. Митрохин 2003). 또한 문서화가 더욱 잘 되어 있는 러시아 내 타지크스탄 출신 이주자의 흐름을 고려하여 러시아 내 우즈베크 이주자의 실제 숫자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04년 타지크 이주자의 추정치는 42만 명에서 60-80만 명에 이른다. 러시아의 전체 이주자 가운데 등록된 우즈베키스탄 인과 타지키스탄 인의 비율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각각 14.3%와 14.8%), 우즈베크 이주노동자의 실제 숫자는 대략 타지크 이주노동자의 숫자와 비슷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실제로 우즈베크의 NGO 'Tong Jahoni'는 2005년 러시아 내 우즈베크 이주자의 총 숫자는 80만 명(전체 우즈베키스탄 노동력의 6%)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했다(A. Ilkhamov 2006: 7).

러시아로 이주한 타지크 노동자의 이주관련 통계를 이용하여 러시아로 이주한 우즈베크 노동자의 사회적 구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타지크의 사회과학자 올리모바(Saodat Olimova)에 따르면, 타지크 이주노동자의 소득은 타지키스탄 GDP의 22%를 차지한다. 동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자의 52%는 건설노동자, 22%는 상업이주자(보따리무역상), 나머지는 농업노동자였다. 타지크 이주자의 94%는 남성으로 보고되고 있다(E. Tursunov 2004). 한편, 우즈베크 이주자의 대다수는 20-45세 사이의 남성이다. 이러한 우즈베크인은 숙련도가 낮은 벽돌공, 미장이, 농업노동자, 유리창닦이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러시아 내 우즈베크 이주자의 범위는 출신지나 범주 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적어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A. Ilkhamov 2006: 7-8).

첫 번째 범주는 주로 지방과 농촌지역 출신의 20-40대로 대부분 미숙련 수준의 일자리를 찾는 집단이다. 이들 이주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대부분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이들은 다른 집단보다 이슬람이나 전통적인 가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39-40만 명의 이주자들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범주는 25-45세 사이의 고숙련 전문가나 사업가로 구성되어 더욱 많은 돈을 버는 일자리와 소득원을 찾는 이주자 집단이다. 이들 우즈베크인은 종종 타슈켄트나 대도시 지역에서 대학을 마친 후 이주를 떠난다. 이들은 비종교적인 교육을 받았으며 우수한 러시아어 구사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숫자는 약 4-5만 명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범주는 영주 목적으로 러시아로 떠나 러시아 시민권을 얻었으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과 사회적 접촉관계를 유지하는 이주자 집단이다. 이들은 대부분 러시아 민족으로 러시아 문화에 동질성을 갖고 있다. 포스트소비에트 시기동안 약 50-55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국적을 우즈베크에서 러시아로 바꾸었다. 또한 여기에는 러시아로 이주하여 러시아 시민권을 획득한 상당히 많은 우즈베크인이 포함된다. 그들 중 일부는 러시아 비즈니스계와 행정부 관료 및 문화계 유명인사로 명성을 얻었다.

네 번째 범주는 피난민이나 정치적 망명자, 그리고 정치·종교적 반체제 인사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는 우즈베크의 반체제 인사들이 정부의 탄압을 피해 피신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는 정치적 이민에 대한 정책을 변화시켰다. 러시아 당국이 우즈베크 출신자들에 대해 이주자나 학생 혹은 시민권 지위를 취소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추방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A. Ilkhamov 2006: 8). 러시아에서 위험을 느낀 일부 정치망명자들은 우즈베크 정권과 유착관계가 덜한 우크라이나로 재이주에 나서기도 했다. 이 범주에 속하면서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크인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2.2.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주는 주로 두 가지 요인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첫째는, 우즈베키스탄의 생활수준 하락과 비즈니스 활동의 제약,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더욱 나은 경제적 여건 등과 관련된 주로 경제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둘째는, 이웃국가에 살고 있는 친척 간의 유대관계에 기인한 이주인데, 키르기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및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는 안디잔(Andijan), 페르가나(Ferghana), 수르한다랴(Surhandarya), 호레슴(Khoresm), 그리고 타슈켄트 주 등의 국경 주변에 우즈베크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국경통과 시 비자면제 제도이다. 역내 이주의 주요 루트는 다음과 같다.

점점 많은 수의 이주자들이 카자흐스탄, 특히 남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는 이주자들은 네 집단으로 뚜렷이 나누어진다.

첫 번째 범주의 이주자들은 카자흐스탄에 영구 이주하여 시민권을 신청하

려는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 출신의 카자흐 소수민족으로, 공식 통계에 따르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에 약 5만 명의 카자흐 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들 이주자의 75%가 카라칼팍스탄 출신이었다. 비공식 자료원에 따르면, 재정착민의 숫자는 18만 명에 달한다(Д. Кадырова 2002).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카자흐 민족의 이탈은 아랄해 유역의 인적 재앙, 카자흐스탄의 더 높은 생활수준, 그리고 카자흐 정부가 오랄만인(Oralmans: 카자흐 소수민족 출신 재정착자)에게 급부금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실 등으로 인해 촉진되었다.[4]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카자흐로의 대이동은 카라칼팍스탄의 민족구성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두 번째 범주는 일자리를 찾아 카자흐-우즈베크 국경을 넘는 농촌의 우즈베크 이주노동자로 대부분 러시아로 떠나는 이주자들과 유사한 범주의 노동특성을 갖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의 추피크(V. Chupik)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주요 주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중 31%는 건설부문에, 31.9%는 시장노점(bazaars)에, 8.9%는 농업부문(종종 개인농이 소유한 면화농장)에, 나머지는 서비스부문에 고용되어 있었다(IOM 2006). 2005년 초반에 2천 명의 이주노동자들만이 남부 카자흐스탄의 지방당국에 등록되었을 뿐, 더욱 많은 숫자는 미등록 상태에 있었다.

세 번째 범주는 카자흐 대학에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로 그들은 거기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부패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네 번째 범주는 정치적 이주자와 난민으로 구성되는 이주자 집단으로 이들의 숫자는 안디잔 사태 이후에 증가했다.

3.3. 노동이주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즈베크 정부의 정책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의 대규모 노동이주가 우즈베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크 이주자들의 목적지 국가에서의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즉, 현지의 국민과 각종 제도에 의해 그들이 어떻게 인식되었고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들의 경험은 아주 복잡하고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우즈베크 이주자들은 러시아 평균 수준

4) 이러한 급부금에는 카자흐스탄으로의 운임에 대한 재정지원, 현금수당, 주택구입에 대한 신용이 포함된다.

보다는 아주 낮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벌었을 소득보다는 더욱 높은 소득을 얻는다. 그들이 러시아에서 받는 급여는 월 평균 52달러로 추정된다. 때때로 이는 CIS 내 다른 지역 출신 이주자가 러시아에서 받는 것보다 적다.[5] 우즈베크 이주자들은 때때로 자국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을 받아들인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즈베키스탄보다 러시아에 언론자유가 더욱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자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우즈베크인은 타지크인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 적대적이진 않더라도 매우 비우호적인 환경에 처했다.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에서는 민족주의적・인종주의적 움직임이 증가해 왔으며 그들의 슬로건은 일반 러시아인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이주자들에 대한 경찰과 공무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이주자들은 스킨헤드와 청년층이 저지르는 공격에 시달린다. 러시아의 스킨헤드(주로 인종주의에 사로잡힌 젊은 연령대의 폭력집단)나 훌리건들이 우즈베크인과 타지크인을 살해한 여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우즈베크 정부는 우즈베크 사회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국가 간(cross-national) 네트워크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 2000년 이래 우즈베크 정부는 해외여행과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제한하는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해 왔다. 우즈베키스탄 외부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및 언론보도의 유입은 제한되었다. 이는 특히 이슬람 자료에 대해 그러하다.[6] 2002년 이후에는 세금 및 관세의 인상과 소규모 거래와 시장 비즈니스에 대한 별도의 행정적인 장벽으로 인해 상거래를 위한 여행도 축소되었다. 또한 정부는 우즈베크 학생들이 서방의 대학에서 유학하도록 돕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삭감했다.[7] 이제 우

---

5) 예를 들면 아제르바이잔 출신 이주자는 133달러를 받고 아르메니아와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자들은 130달러를 받는다. 한편, 러시아의 우즈베크 이주노동자의 평균소득이 이보다 더욱 높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있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소재 국제이주기구(IOM)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우즈베크 이주자들의 평균소득은 152달러였다(IOM 2006: 24).

6) 2004년 6월 우즈베크 정부는 출판에 대한 제한조치를 도입하여 외국 저자의 저술을 재발행하는 출판사의 자유를 제한했다. 그 이후 모든 책은 국가출판정보국(State Agency for Press and Information)의 허가를 받아 출판될 수 있게 되었다(A. Ilkhamov 2006: 18).

7) 우즈베크 정부는 2003년 재능 있는 젊은 학생들이 외국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즈베크 정부는 젊은 우즈베크 학생들에게 학비를 제공하는 국제기관에 의혹을 제기한다.[8)]

우즈베크 정권은 통제받지 않는 유출이주의 영향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우즈베크 정부는 노동이주가 '안전밸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해외취업은 투자의 중요한 원천이면서 연간 약 13억 7,000만 달러를 송금의 형태로 우즈베키스탄에 들여오기 때문에 사회적 동요를 부채질할 실업문제를 유예시켜주기 때문이다(A. Ilkhamov 2005). 이는 복지관련 경비로 지출할 국가예산의 부담을 덜어주며 정부에 일자리 제공을 요구하는 과잉 노동력의 압력을 경감시킨다.

소비에트 시기와 그 후에도 우즈베키스탄은 높은 출산율을 유지했다. 예를 들면, 2002년 우즈베키스탄 인구는 39만 4,600명 혹은 3.5% 증가했다(State Department of Statistics 2003). 매년 약 300개 학교의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다. 노동이주는 노동력의 커다란 부분을 흡수하고 있으며, 실업이 야기할 사회적 긴장과 사회·정치적 불안정을 유예시킨다. 따라서 우즈베크 정부는 곤란한 선택에 직면한다. 즉, 이주를 더욱 제한하여 미래의 사회적 긴장의 단계적 상승에 맞설 것인가, 아니면 통제되지 않은 정보나 지식 및 이념의 불가피한 유입, 그리고 국가 간 연결망에 우즈베크 주민의 참여 등 노동이주와 그것이 들여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선택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삶에 이주가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주관련 정책에서 중심적인 과제는 이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능한 한 증가시킬 수 있는 이주의 관리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9)]

돕는 우미드 자선단체의 자금조달 활동을 중단시켰다.

8) 이 정책은 이웃국가인 카자흐스탄의 정책과는 뚜렷이 대비되는데, 카자흐스탄의 젊은 학생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사적기금, 그리고 국제기부기관의 지원 등을 비롯하여 각종 자금의 도움으로 외국에서 유학할 수 있는 더욱 많은 기회를 누리고 있다. 예를 들면, 2005/2006학년도에 인디애나 대학은 29명의 카자흐 학생을 추가로 받아들였지만 우즈베키스탄 출신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A. Ilkhamov 2006: 19).

9)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현재 우즈베크 노동·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가 노동이주 분야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동시에 이 부처의 산하에 있는 대외노동이주국(External Labor Migration Agency)은 독립채산제에 기초하여 5개의 지역 지부를 가진 독자적이고 영리적인 단위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센터가 상당히

4. 송금의 규모와 사회경제적 역할

금융/현금 이전으로서의 송금은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합법적 이주노동자와 불법적 이주자들에 의해 노동 유입국에서 송출국으로 보내진다. 송금은 현재 송출국의 국가경제 및 지방경제를 지탱하는 데, 특히 빈곤축소와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의 크기가 현저하게 확대되어 왔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즈베키스탄과 주요 이주자 유입국(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간의 금융이전 채널은 크게 '공식적' 채널과 '비공식적' 채널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공식적 채널로는 은행이나 송금대행사(MTOs: Money Transfer Operators)를 이용한다. 비공식적 채널로는 친구, 친척, "하왈라(hawala)"와 같은 방법이나 인터넷 기반의 전자계정을 통한 거래방법을 이용하고 돈을 직접 소지하고 돌아오기도 한다. 상당히 많은 불법적 송금은 이주자 자신이나 대리인에 의해 현금의 형태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빠져나온다. 국내의 사회공동체 내부에서는 아주 최근까지도 친척이나 친지, 열차 차장, 배달 서비스를 통해 돈을 이전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각종 연구와 조사는 비공식적 채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 Muradova and J. Kakharov 2009).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송금은 정확한 추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추정 방법과 기준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하에서는 주로 공식적 채널을 통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4.1. 러시아로부터의 송금

2008년 송금시스템과 우편서비스를 통한 러시아의 송금액은 137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송금의 대부분은 구소련의 공화국으로 보내졌다. 송금의 주요 수취국가는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및 우크라이나로서, 각각 약 30억 달러, 26억 6,000만 달러, 19억 달러를 수취했다.[10] 그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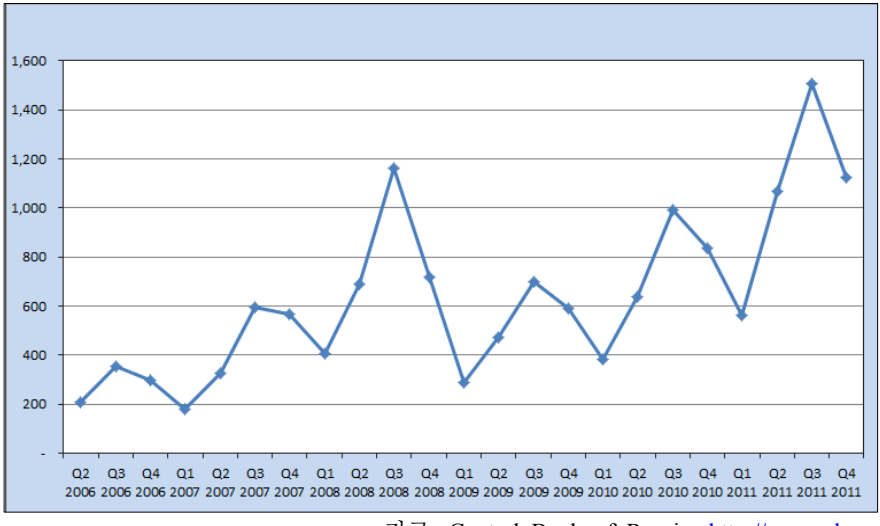
적은 노동이주 인력(연간 약 천 명)에 대해 출국 전 직업훈련과 노동이주자 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법인이나 개인 및 민간기관이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것은 우즈베크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S. Isakulov 2010: 112).

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러시아 중앙은행을 인용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33억 달러가 이전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이주목적지 국가에서 전반적인 소비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는 송금액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2008년의 이전금액은 2007년에 비해 78% 증가하였지만, 2009년 제1분기에는 2008년 제4분기에 비해 2.5배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계절성 요인을 고려하여(우즈베크 이주자의 대다수는 겨울이 시작할 때 고향으로 돌아와서 봄에 러시아로 일하러 돌아간다), 2008년 제1분기와 비교하더라도 여전히 하락폭은 30%나 된다. 평균이전금액 또한 이 시기 동안 감소하여 2009년 제1분기에 497달러를 기록했다. 아래의 <그림 1>과 <표 5>는 지난 수년 동안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전달된 화폐이전의 움직임을 간략하게 보여준다.

<그림 1> MTO를 통한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분기별 송금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http://www.cbr.ru/

10) 러시아중앙은행(Central Bank of Russia)의 데이터.

러시아에 소재한 약 20개의 송금대행사와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14개의 송금대행사는 활발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영 중인 송금대행사 중에서는 웨스턴유니온(Western Union) 같은 국제시스템이 유명한데, 러시아에는 아넬리크(Anelik)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표 5> MTO를 통한 러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2007-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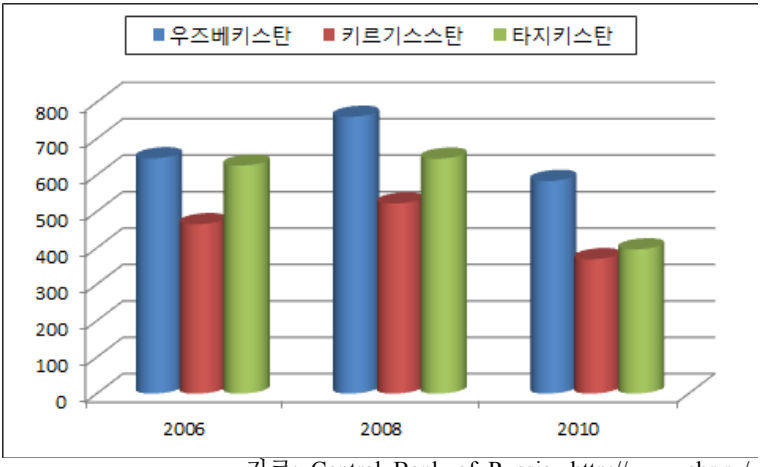
연도/분기 / 거래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송금총액(백만 달러)	1,666	2,978	2,052	2,845	4,262
거래당 평균금액(달러)	643	739	563	572	589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http://www.cbr.ru/

현행 법률은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고 러시아 국민이 송금대행사를 통하여 보낼 수 있는 최대 송금액으로 1인당 하루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한은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금대행사는 자주 자체적인 최대한도를 정한다. 예를 들어, «Blizko»는 1만 달러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Leader»는 약 1만 5,000달러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전하는 경우 송금대행사는 송금의 최종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우즈베크 내 수혜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세무당국에 전달하며, 이에 따라 조사과정이 개시되기도 한다.

최근 수년에 걸쳐 러시아에서는 관세가 크게 인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폐이전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었다. 대개 러시아에서 국내 및 해외로의 이전에 대한 절차는 동일하다. 자금을 보내는 사람은 여권이나 기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성과 이름, 금액, 통화, 수취인이 돈을 받기 편리한 국가 및 도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흔히 송금대행사에서 보내는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이주자는 또한 이민카드와 임시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다. 보내는 사람은 화폐이전의 추적번호를 포함하는 송금문서 사본을 받는데, 이는 수취인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는 데 필요하다. 대부분의 송금대행사는 추적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송상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보내는 사람도 이전상태를 추적할 수 있다. 이전된 송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특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것은 보낸 사람에게 반환된다. 이 기간은 «Anelik»은 30일이고, «Leader»는 6개월이다(S. Murodova 2011: 8).

<그림 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평균 송금액 (단위: 달러)



자료: Central Bank of Russia, http://www.cbr.ru/

각종 연구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경우에 송금은 주로 해당 국가의 수도로 보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몰도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경우, 많은 송금 수취인이 주요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내 여러 지역에서 나온 이주노동자의 능력 수준과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직업은 다양하다. 여러 연구자들이 실시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는 페르가나 계곡(Fergana Valley) 출신이 건설노동자와 요리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들 이주자들이 대개 남부지역 출신의 이주노동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의 또 다른 특징은 2008년 우즈베키스탄으로의 평균송금액(760달러)은 키르기스스탄(522달러)과 타지키스탄(645달러)의 평균금액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이 종종 모아져서 보내진다는 사실에 기인하는데, 여러 사람이 자신의 저축을 합쳐서 한 사람에게 보내고 나중에 이 금액을 여러 수혜자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초에는 보낸 사람(송금인) 당 수취인의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불법' 수준의 감소를 가리킨다(РусСлавБанк 2009). 다시 말해, 위기와 일자리 감소는 주로 불법 이주자에게 타격을 주어 그들 중 상당수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반면, 합법적 이주자의 대부분은 비교적 영향을 덜 받고 러시아에 계속 일했던 것이다.

송금대행사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 널리 확산되어 있다. 러시아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압도적 다수는 이러한 정상적인 송금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그 중 가장 보편화된 송금대행사는 웨스턴유니온(Western Union)[11] 이다(<표 6>을 참조). 송금대행사를 이용하거나 은행을 통해 송금을 경우에는 일정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러시아를 떠나면서 현금을 소지하는 데는 적지 않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절도를 당할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세관원들이 이주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비공식 지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표 6>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전달 채널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 수(명)	비중(%)
송금대행사 (웨스턴유니온, 유니스트림 등)	82	83.7
은행 송금	0	0
이주자나 친척에 의한 소지	5	5.1
우편 송금	0	0
여행사	0	0
버스기사	0	0
기타 (무응답, 무송금 등)	11	11.2
전체	**98**	**100**

자료: K. Aslan(2011a), 184.

4.2.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송금

2000년대 중반 이후,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이주자들에게 인기 있는 새로운 목적지가 되었다. 2007년의 시점에 25만 명의 우즈베크인과 22만 명 이상의 키르기스인, 그리고 5만 명의 타지크인이 카자흐스탄에서 일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월평균 급여는 러시아에 비해 낮지만, 카자흐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더욱 수월한 귀화절차를 제공한다(M. Laruelle 2007, 2008).

카자흐스탄에서는 1만 달러를 넘지 않는 금액은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할 수 있고 은행계정을 개설하지 않은 채 유선으로 송금할 수도 있다. 유선전송시스템 수의 증가는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촉진하고 전송수수료를 낮

11) 웨스턴유니온은 2010년 시점에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약 43만 5,000개의 영업망을 갖고 있었다. 그 웹사이트에 따르면, 웨스턴유니온은 2008년에 650억 달러를 전달했다.

추고 있다. 전문화된 국제유선시스템 간에 요금은 전반적으로 표준화(평균 2-4%이고 송금액에 따라 높아짐)되어 있고 송금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에서 3-24시간의 범위에 있다(E. Sadovskaia 2006: 112-113).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신규채용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필요한 노동자를 채용할 뿐만 아니라 송금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콘니코프(A. Иконников 2008)에 따르면, 1999-2007년의 동안 카자흐스탄에서 일한 이주노동자 가운데 우즈베크인이 57.6%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7>의 공식 통계는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진 송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우즈베크 이주자들이 주로 비공식적인 채널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수입을 고향에 가져간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송금 (단위: 백만 달러)

연도 / 송금	2006년	2007년	2008년
송금액(백만 달러)	1.62	2.78	2.22

자료: National Bank of Kazakhstan (2008)

중앙아시아 경제전략연구소의 쿠르마노바(A. Kurmanova) 소장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송금총액은 2007년에 30억 달러에 달했다. 2007년에 시작된 카자흐스탄의 건설 및 금융 위기로 인해 송금총액은 22억 달러로 감소했다.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송금액은 전체 송금총액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자흐스탄에도 하왈라와 유사한 시스템이 존재한다(A. Иконников 2008).

그러나 무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같은 인접국의 경우, 송금총액에서 비공식적 송금의 비중은 현저하게 더 높을 수 있다. <표 8>은 카자흐스탄에서 행해지는 송금방법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의 선호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 일하는 우즈베크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송금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8>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송금전달 채널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 수(명)	비중(%)
스스로 가지고 간다.	105	41.2
친구를 통해 보낸다.	61	23.9
친척을 통해 보낸다.	38	14.9
송금대행사(웨스턴유니온 등)을 이용하여 보낸다.	24	9.4
우편을 통한 송금	21	8.2
전혀 보내지 않는다.	12	4.7
돈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스스로 가지고 간다.	4	1.6
온지 얼마 안 되어 아직 보낸 적이 없다.	4	1.6
특별한 전달자를 통해 보낸다.	3	1.2
모름 / 무응답	37	14.5
표본 수	**255**	**100**

주: 응답자는 복수의 대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응답자 수는 100%를 초과한다. 자료: E. Sadovskaia(2006), 116.

이 설문조사는 이주노동자의 가장 큰 부분(41.2%)이 수입을 스스로 고향으로 가지고 가며, 자신의 친구(23.9%)를 통해 보내거나 친척(14.9%)을 통해 보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 중 17.6%만이 자신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보낸다. 사돕스카야(E. Sadovskaia)가 지적하듯이, 카자흐스탄에서 소수의 이주노동자만이 공식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이 전반적인 중등교육을 받았거나 중등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미숙련 노동자이고 이전에 상업은행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4.3. 노동이주와 송금: 개발 및 빈곤축소

송금은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에의 투자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송출국의 투자를 자극하고 경제의 현대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엔진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송금이 지출되는 실제 사용처는 이러한 목적과는 다르다. 흔히 이주 자체의 비용과 관련되는 부채와 기초 필수품이 충족되면 가족이 수취하는 송금의 많은 부분은 내구재와 주택구입에 사용되며, 그 다음에는 부동산 투자나 투기, 각종 저축에 지출되고, 마지막으로 생산적 자산에 대한 투자에 사용된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증거는

송금의 압도적인 부분이 주택, 건설 및 전통적인 가족의식(결혼식, 잔치 등)에 지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송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면에서 볼 때, 송금이 외부자금 유입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많은 연구는 송금이 빈곤의 축소에 기여하고 가계의 생활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체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주노동자의 11.6% 및 전체 노동자의 1% 이상이 외국에서만 전적으로 일하며,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평균적으로 1.3명의 성인과 3.6명의 아이들을 부양한다. 이에 따라 성인인구의 약 2.2%와 아동의 4.4%가 외국의 가족이나 친척이 버는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성인인구의 18.9%는 소득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일하는 데서 얻는다. 노동이주에 참여한 적이 있는 우즈베크 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보낸 송금이 가족의 소득과 후생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주노동자를 두고 있는 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더욱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것을 보여주었다(IOM 2006: 49).

노동이주가 가계의 후생수준에 긍정적으로 개선한 것은 우즈베크 젊은이들의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이는 건축학부나 요리과정에 등록하는 학생의 숫자가 크게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의대나 사범대 및 공과대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노동시장에 가장 큰 긴장을 야기하는 지역, 예컨대 지자크(Djizzak), 페르가나(Ferghana), 시르다린스키(Syrdarynskii) 등의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주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이주는 실업문제를 크게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우즈베키스탄 내 이들 지역의 공식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0.2-0.4%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연령인구의 약 52.0%만이 고용 상태에 있다.

노동이주는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소규모 비즈니스에 착수할 수 있는 자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경제활동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적지 않은 기업인이 창업에 필요한 초기자본을 외국에서의 노동이주를 통해 벌었으며, 이들의 사업체는 현지의 소규모 사업체가 만들어낸 일자리(7개)보다 더욱 많은 일자리(37개)를 만들어내었고 기존 사업체보다 더욱 장기간 동안 활발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Л. Максакова 2005). 이러한 결과는 외국에서의 노동이주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새로운 비즈니스 관행의 습득 그리고 유용한 인맥의 구축 등이 긍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은행시스템의 발달이 지체되어 상당 부분의 송금이 비

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지만, 노동이주는 송금을 통해 송출국의 국민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러시아 연구자들은 자국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인들이 매달 52달러를 보내는 것으로 추정한다(Е. Тюрюканова 2004).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일하는 노동이주자가 우즈베키스탄에 보내는 총 송금액은 5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Л. Максакова 2005). 우즈베키스탄 노동이주국(Agency on External Labour Migration)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일하는 자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매달 최소한 300달러를 가족에게 보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2] 또한 각종 증거는 송출국이 노동이주에 국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유로운 노동이주 정책을 실시할수록 이주노동자들이 보내는 송금액이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각종 권리를 더욱 잘 보호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9> GDP 대비 송금액 비중 (단위: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우즈베키스탄	…	…	…	18.7	11.5
키르기스스탄	13.1	17.0	18.8	24.0	19.3
타지키스탄	20.2	36.2	45.5	49.5	35.1

자료: М. Б. Денисенко (2010)

<표 9>는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송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이에 관한 통계수치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 이후의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노동이주 유입국의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전인 2008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은 GDP 대비 송금의 비율이 약 19% 수준에 이르렀으며, 타지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50%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송금액의 규모를 볼 때, 송금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외부자금 유입의 중요한 원천이자 개발을 위한 잠재적인 자금원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13]

12) М. Б. Денисенко(2010) 참조. 한국 내 우즈베크 이주노동자는 대개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송금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지는 정확한 송금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데이터에 의하면 2010년 말 현재 약 25,000명의 우즈베크 이주노동자가 국내에서 일하고 있고,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연간 1만 달러 정도를 본국에 송금한다는 각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한국 내 우즈베크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연간 약 2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3) 우즈베키스탄으로 유입되는 송금액의 규모는 다른 원천의 자금유입액과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GDP 대비 이주자 송금액의 비율이 평균 10% 증가하면 빈곤인구의 비율을 1.6%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 Adams and J. Page 2005). <표 9>에서 보듯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이주가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GDP에서 차지하는 송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이주에 따른 송금이 빈곤인구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주와 그에 따른 송금이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송출국의 빈곤인구를 감소시키고 가계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결론이 내려지지만, 이주와 개발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결과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테일러 외(Taylor et al. 1996)는 이주의 송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잠재적 효과는 국내의 시장조건과 자원 부존, 그리고 외환의 이용 가능성과 비용 등을 비롯한 상황적(contextual) 요인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루카스(Lucas 2005)는 이들 요인에다 이주흐름의 범위와 성격, 이주자의 경험, 그리고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여건과 같은 요인을 추가한다. 또한 이주의 개발에 대한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전국적인 배치와 자원의 성공적인(혹은 성공적이지 못한) 동원과 재활용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

다른 한편, 이주와 개발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두 가지 차원에서 이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주의 공간적 차원(즉, 지리적 규모)과 이주의 단계적 차원이 그것이다. 존스(Jones 1998)는 왜 어떤 학자들은 이주가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발견하고 다른 학자들은 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발견했는지를 설명한다. 이주와 개발의 관계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일정한 지역에서 이주경험의 단계에 따라 상이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특정 지역에서 이주경험이 아주 새로운 경우에는, 주로 중간계층과 상위계층이 이주에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는 '개척 단계(innovator stage)'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조기 적응 단계'(early adopter stage)는 사회계층의 중하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경험에 합류하게 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인 '후기 적응

더욱 두드러진다.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공적개발원조(ODA)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합칠 경우 총 2억 1,430만 달러 혹은 GDP의 1.5%에 달했는데, 반면 총 송금유입액의 추정치는 10억 달러 혹은 GDP의 7.1%에 이르렀다(K. Aslan 2011b: 98-99).

단계(late adopter stage)'는 모든 계층의 광범한 참여가 가능해지고, 도시와 지방간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계층 간 불평등이 줄어든다(K. Aslan 2008).

이주의 단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주의 초기 단계에는 긴급한 필요를 충족하는 데 송금지출의 우선권이 부여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전 세계의 모든 이주자 송출지역에서 주택마련은 이주자 송금에 대한 최우선적인 사용처로 꼽힌다. 즉, 지출패턴은 이주경험의 단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이주의 '개척 단계'를 경험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카자흐스탄이 중요한 이주 목적지로 자리잡으면서 노동이주의 범위와 영향이 한층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주의 '조기 적응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다음 단계인 '후기 적응 단계'로 진입하는 데는 이주의 양적인 규모의 증가가 아니라 우즈베크 정부의 이주에 대한 진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우즈베키스탄의 이주와 송금은 빈곤을 축소시키는 데는 긍정적 역할을 했으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주와 송금이 과연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혹은 불확정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론과 실제의 면에서 볼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와 개발 간의 관계는 맥락적인 요인을 검토함으로써만 적절히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적인 우즈베키스탄의 개발 잠재력은 지역의 특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된 제도를 입안하는 한에서 극대화될 수 있다.

5. 결론

이주와 그에 따른 이주자 송금이 우즈베키스탄의 빈곤축소와 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잠재적 중요성은 이주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증가하고 있다. 송금의 커다란 부분이 비즈니스 발전, 일자리 창출, 교육 및 보건에 사용된다면 해당 사회공동체에 대한 혜택은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적 자금흐름은 대부분의 경우 경제발전을 바람직한 수준으로까지 이끌지 못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송금의 대부분은 순수 소비나 소비적 투

자에 충당된 반면, 생산적 투자에 할당되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례에서 볼 때 송금은 상대적으로 덜 생산적인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금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소비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의 배경에는 경로 의존적인 사회적 환경이 지배적인 이론이 제시하는 것보다 잠재적인 이주자의 의사결정과 잠재적인 개발 성과에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은 새로운 국가 제도를 설계하면서 사회적·정치적 제도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시대의 완고한 유산과 그것이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내면화시킨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주와 송금은 종종 개인, 가구, 사회공동체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더욱 구조적인 발전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만약 우즈베키스탄이 보편적인 사회경제 개혁을 실시하는 데 이르지 못한다면, 이주와 송금은 해당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주와 송금이 사회개발에 미치는 기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의 후생 증진과 시장기능 활성화 그리고 보건·교육과 같은 사회보장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선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주와 송금 그리고 개발의 연관관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광범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주와 송금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새로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편익과 과제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주노동자들이 새로 획득한 자본과 다른 모든 종류의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을 생산적 투자로 돌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도와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회를 조직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국가는 전체 사회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적절히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주의 성과는 전국적인 범위에서 통일성 있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국가의 힘과 역량에 의존할 것인데, 이주에 따른 송금은 중앙정부가 구축하는 더욱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개혁의 틀 내에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에서 이주 회의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시적이고 통계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중앙아시아의 도시 중심지에 의사, 간호사, 교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를 비롯하여 비슈케크, 두샨베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즉, 이주와 송금에 따른 몇 가지 부(負)의 외부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밖의 다른 사례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주와 관련된 이와 같은 상황전개에 대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은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부(負)의 외부효과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방안은 합리적으로 설계된 제도적 틀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관계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우즈베크 정부는 유입된 송금을 중소기업 발전에 충당하는 한편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인구를 도시의 제조업 일자리로 점진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주자 송금을 중요한 재원으로 하여 우즈베크의 농업사회를 제조업 및 서비스 중심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즈베크 정부는 거시경제 계획, 은행 및 금융시스템 강화, 일자리 창출, 미소(微小)기업과 중소기업 강화, 생산성 제고, 공공서비스 향상, 교육환경 개선, 특히 이주자와 비이주자 간의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공간적 불평등 해소와 같은 더욱 광범위한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국가정책은 국가·사회의 조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의 중요한 과제는 사회와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주의 성과 특히 송금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경제발전의 성공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노동이주는 노동이주 과정과 개발이슈에 관련되어 있는 정부를 비롯한 여타 이해당사자에게 계속하여 중요한 정책대상이자 정책우선순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이주의 잠재력을 우즈베키스탄 내의 개인과 사회공동체 및 국가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향후의 지속적인 과제로 남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진(2012) 「중앙아시아의 노동이주 현황과 사회・경제적 영향」, 『슬라브연구』 28:1,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1-26.

Денисенко, М. Б.(2010) “Миграция и Денежные Переводы: Россия,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Азербайджан и Армения,” Presentation Paper of ESCAP, United Nations.

Иконников, А.(2008) “Жесткое Эхо Кризиса,” *Журнал Континент*, № 6(215), (26 Марта - 8 Апреля), http://www.continent.kz/2008/06/5.htm(검색일: 2012.09.15).

Кадырова, Д.(2002) “Узбеки Казахстана и Казахи Узбекистана,” *Континент*, № 20(82) (16-29 Октября), http://centrasia.org/newsA.php4?st=1034910480 (검색일: 2012.09.15).

Максакова, Л.(2005)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Населения Узбекистана: Тенденции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Ташкент: Центр эффектив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Митрохин, Н.(2003)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из Государст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Журнал Отечественные Записки*, № 3, http://www.strana-oz.ru/?numid=12&article=575(검색일: 2012.09.15).

РусСлавБанк(2009) “Денежные Переводы Как Метод Оценки Ми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Press-release of RusSlavBank (July 14), http://www.russlavbank.com/prcenter/newsdetail/642.html(검색일: 2012.09.15).

Тюрюканова, Е.(2004) “Трудовая Миграция из Стран СНГ и Новые Практики Эксплуатации Труда,” в кн.: В. А. Ионцев(ред.) *Международной Миграции: Каир +10*, М.: МАКС Пресс, С. 85-104.

Федотов, А. Л. и др.(2002) “Русский Язык в Мире,”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 http://www.ln.mid.ru/ns-dgpch.nsf/0/8a295699af8a67af43256da4004c1a2c?OpenDocument(검색일: 2012.09.15).

Шереги, Ф. Э., Дмитриев, Н. М., и А. Л. Арефьев(2003)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в России,” *Демоскоп Weekly,* № 99-100 (3-16 Февраля), http://demoscope.ru/weekly/2003/099/analit02.php(검색일: 2012.09.20).

Abdurazakova, D.(2011) “Social Impact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Remittances

in Central Asia,"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Vol. 26, № 10, pp. 29-54.

Adams, R. H. and J. Page(2005) "Do International Migration and Remittances Reduce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Vol. 33, № 10, pp. 1645-1669.

Aslan, K.(2008) *Labor Migration: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in Kyrgyzstan & Uzbekistan*, Bishkek: Social Research Centre(American University of Central Asia).

_____(2011a)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from Rural Central Asia: The Potential for Development in Kyrgyzstan and Uzbekistan," Ph.D. diss., Ohio: Kent State University.

_____(2011b) "Determinants of Productive Investment through Migrants' Remittances in Rural Central Asia," *Eskişehir Osmangazi Üniversitesi İİBF Dergisi*, Vol. 6, № 2, pp. 97-121.

Castles, S. and M. J. Miller(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4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Chupik, Valentina(2005) NGO 'Tong Jahoni,' Uzbekistan.

De Haas, H.(2007) "Remittances, Migration and Social Development: A Conceptual Review of the Literature,"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Programme Paper*, № 34,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pp. 1-35.

_____(2010) "Migration and Development: A Theoretical Perspectiv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44, № 1, pp. 227-264.

Durand, J., Kandel, W., Parrado, E. A., and D. S. Massey(1996) "Migradollars and development: A reconsideration of the Mexican cas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0, № 2, pp. 423-444.

Giddens, Anthony(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Cambridge: Polity Press.

Ilkhamov, A.(2006) "Geographic Mobility of Uzbeks: The Emergence of Cross-National Communities vs. Nation-State Control," Paper Prepared for NBR Conference on Generational Change and Leadership Succession in Uzbekistan (March 2).

IOM(2006) *Labour Migrants from Uzbekistan in the Southern Regions of*

Kazakhstan, Assessment Report.

Isakulov, S.(2010) "The State Control of Migration in Uzbekistan and the Some Aspects of its Further Improvement," *Perspectives of Innovations, Economics & Business*, Vol. 6, № 3, pp. 112-115.

Jones, Richard C.(1998) "Remittances and inequality: A question of migration stage and geographical scale," *Economic Geography*, Vol. 74, № 1, pp. 8-25.

Laruelle, M.(2007) "Central Asian Labor Migrants in Russia: The 'Diasporization' of the Central Asian States?," *China and Eurasia Forum Quarterly*, Vol. 5, № 3, pp. 101-119.

_____(2008) "Kazakhstan, the New Country of Immigration for Central Asian Workers," *Central Asia–Caucasus Analyst*(April 16), pp. 6-8.

Lewis, J. R.(1986)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and Uneven Regional Development in Labour Exporting Countrie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Vol. 77, № 1, pp. 27-41.

Lipton, Michael(1980) "Migration from the rural areas of poor countries: The impact on rural productivity and income distribution," *World Development*, Vol. 8, № 1, pp. 1-24.

Lucas, Robert E. B.(1987) "Emigration to South-Africa's min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7, № 3, pp. 313-330.

Marat, Erica(2009) *Labor Migration in Central Asia: Implication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Washington, D.C.: Central Asia-Caucasus Institute.

Massey, D. S., Arango, J., Hugo, G., Kouaouci, A., Pellegrino, A., and J. E. Taylor(1998) *Worlds in Mo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Oxford: Clarendon Press.

Murodova, S.(2011) "Inward Remittance Channels to Uzbekistan and the Impact of Global Economic Crisis on Migrant Laborers and Remittances," Unpublished Manuscript (February 2011).

_____, and J. Kakharov(2009) "Appraisal and Analysis of the Currently Existing Financial Transfer Channels, Savings and Credit Products Available for Migrant Laborers in Uzbekistan," Unpublished Manuscript.

Myrdal, Gunnar(1957) *Rich Lands and Poor*, New York: Harper and Row.

National Bank of Kazakhstan(2008) *Balance of Payments and Foreign Debt*

for 2008, Almaty: National Bank of Kazakhstan.

Papademetriou, Demetrios G.(1985) "Illusions and Reality in International Migration: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Post–World War II Greece," *International Migration*, Vol. 23, № 2, pp. 211-223.

Penninx, Rinus(1982) "A Critical Review of Theory and Practice: The Case of Turke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16, № 4, pp. 781-818.

Ratha, Dilip(2003) "Workers' remittances: An important and stable source of external development finance,"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03*, Washington, D.C.: World Bank, pp. 157-175.

Sadovskaia, E.(2006) "Labor Migrant Remittances and Their Role in the Migrant Households of Central Asian Countries," *Central Asia and Caucasus*, № 30, pp. 109-123.

Stark, Oded(1991) *The Migration of Labor*, Cambridge and Oxford: Blackwell.

State Department of Statistics(2003) "Republic of Uzbekistan," *Zerkalo 21*, June 3.

Taylor, J. E.(1999) "The New Economics of Labour Migration and the Role of Remittances in the Migration Process," *International Migration*, Vol. 37, № 1, pp. 63-88.

_____, and T. J. Wyatt(1996) "The Shadow Value of Migrant Remittances, Income and Inequality in a Household-Farm Economy,"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32, № 6, pp. 899-912.

_____, Arango, J., Hugo, G., Kouaouci, A., Massey, D. S., and A. Pellegrino (1996) "International Migr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Population Index*, Vol. 62, № 3, pp. 397-418.

Todaro, Michael P.(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9, № 1, pp. 138-148.

Tursunov, E.(2004) "Chief Expert at the Labor and Social Protection Department of the Tajik President's Executive Apparatus," *Asia-Plus News Agency*, Dushanbe (April 23), cited in *BBC Monitoring* (April 24).

World Bank(2002) *Globalization, Growth, and Poverty*, Washington, D.C.: World Bank.

Abstract

Labor Migration and Remittances in Uzbekistan: The Present State and Socio-Economic Influences

Kim, Young Jin

It can be argued that migration and remittances in Uzbekistan have played a positive role for reducing the poverty of the country, but they have exerted no such role for eliminating social inequalities and income gap in the community. Considering the question whether remittances have mad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Uzbekistan's economic development, they have made somewhat positive or indefinite functions by cases. In light of theory and practice, it is appropriate to argue that 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 in Uzbekistan can only be understood and explained by examining contextual factors. Thus,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rural Uzbekistan can be maximized as long as one can offer rationally designed institutions based on regional peculiarities. While migration and remittances often might be considerable blessings for individuals, households and communities, they are no panacea for solving more structural development problems. If state of Uzbekistan fail to implement general social and economic reform, migration and remittances are unlikely to contribute to nationwide sustainable development.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the contribution that migration and remittances can make for the development of Uzbekistan,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aimed at increasing people's welfare, creating functioning markets, improving social security and public services such as health and education.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2. 10. 25
논문심사일: 2012. 11. 1 ~ 11. 28
심사완료일: 2012. 11. 30